

# 시민단체, 문화전당재단 ‘엔터리·불통 인사’ 법적조치 예고

### “지난 대선 보은 차원 인사 개입” 주장...임명 무효 가처분 나설 듯 문체부 “광주문화예술계서 추천...면직 사유 없어 임명 철회 안돼”

문화전당재단의 ‘엔터리·불통 인사’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지난 대선의 보은 차원에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임명 추천 관련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임명 무효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인사 파행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시민연대)는 7일 발표한 ‘문화전당재단 인사 파행 관련 문체부 1차관 면담 결과 논평’에서 “지난 대선의 보은 차원에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문체부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인사를 누가 주도했는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3일 세종시 문체부 회의실에서 문화전당재단 경영진 인사와 관련 문체부 1차관을 면담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임명된 인물들이 향후 재단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의 부적합, 지역과의 소통 무

시, 아북부 부처 2조에 의거해 정관 작성 및 임명 추천 역할을 하는 설립추진단 조차도 추천-심사-임명 과정을 몰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1차관은 “인사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광주문화예술계와 광주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경영진이 임명돼 면직 사유가 없는 한 임명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시민연대는 “비상임-임명제 이사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인 사장은 결지해지 차원에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임명 파행에 대해 면피성 해명만을 반복한 문체부 1차관의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문체부가 콩으로 메주를 쏘다 해도 골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문화전당 정상화를 염원했던 시민들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국회의원, 조성지원포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문화전당운영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시민협의체)도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체부 인사 추천자와 심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의체는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전당재단 이사장과 사장 임명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며 “임명된 인물들이 재단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고 ‘추천-심사-임명’ 과정의 불투명성, 문화예술계와 시민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통 부재의 행적, 지역 정치인의 과도한 인사개입 등 총체적인 인사 파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시민적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문체부장관은 인사파행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죄하고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임명된 당사자들에 대한 현명한 처신도 당부하는 주장도 담겼다. 시민협의체는 “문화전당 운영에 어떤 공적도 없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재, 공정해야 할 인사가 스스로 불공정을 조장해 시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광주시민 전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이번 인사의 당사자들은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의사를 받아들여 현명하게 처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7일 서울시 연희동 기지재단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후원협약식’ 후원 협약식. 왼쪽부터 박승호 기지재단 이사장, 박서보 화백,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제정된다 기지재단 100만달러 후원...상금 10만달러 내년부터 선정

(재)광주비엔날레가 기지재단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제정, 운영한다.

(재)광주비엔날레와 기지재단은 7일 서울시 연희동 기지재단에서 박서보 화백,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박승호 기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6면> 한국 단색화 운동을 이끌어온 박서보 화백이 후진 양성을 위해 기탁한 재원을 바탕으로 2019년 설립된 기지재단은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시상금 100만 달러를 후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협약에 따라 내년 4월 개최되는 제 14회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2042년까지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을 매 대회마다 운영한다. 이 상은 광주비엔날레 전시 참여 작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 1인(팀)에게

상금 10만 달러를 수여한다.

그동안 (재)광주비엔날레는 출품작을 대상으로 수상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 수상자를 발표했었다.

박서보 화백은 “일평생 그림을 그리는 선배이자 예술가라는 동료로서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며 “힘난 과정이지만 예술가로서 사명감을 지니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발전시켜주는 예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어렵고 척박하던 시절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오면서 단색화를 세계무대에 알렸던 박서보 화백의 예술적 신념과 한국 미술을 국제무대에 소개해온 광주비엔날레의 역할이 상용,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60세 미만 코로나 무증상 재택치료...확진자 동거가족 7일 격리

### 치료키트 60세 이상 집중관리군만 지급...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 재택치료를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만 유선 모니터링=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택치료를 관리 방법이 이월화된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지급처를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그 외의 대상자, 즉 60세 미만과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또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를 원할 때 등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 환자 외래진료센터 55곳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재택치료키트 간소화해 집중관리군에게만...역학조사도 ‘스모크’ 방식으로=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용품 키트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된다. 키트 구성품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

트 등 5종이다. 그동안에는 키트에 구성품 7종을 지급해 왔는데 7종 중 손소독제, 종합감기약, 검정비닐봉투 3종을 제외하고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했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날부터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속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 동거가족도 확진자와 함께 7일만 격리, 생필품 구매시 외출도 가능=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지자체 공무원이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을 이용해 확진자와 격리자를 관리해 왔으나 이날부터 이 체계가 폐지된다.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는 지자체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면 된다. 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하고,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1회 받아 음성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해제 뒤에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건기자단

·시설 접촉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또 공동격리중 확진됐을 경우 다른 가족은 추가로 격리하지 않고 확진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이 밖에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약품·식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연남뉴스

**임아** 삽니다  
지분환영  
중개환영. 010-8902-7900

**제일오피스텔 금매**  
수기동, 20층 중 8층, 33평, 코너  
시세 1억→금매 8천만원, 2/28까지  
소유자 직매. 010-9469-8600

## 전남도, 청년주거비 월 10만원씩 1년 지원...25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주거비를 매달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전남에 소재한 회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노동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5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면서 전세 5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다만 유사 주거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

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 요건, 유사 주거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1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자녀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 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사업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희플러스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중우 010-3454-2389

“23년 전원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세계 최고  
진단전문가를 추구하는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학력 : 대졸 이상(4년), 졸업예정자
  - 모집분야 : 안전진단분야 0명
  - 담당업무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토목, 건축분야)
  - 지원자격
    - 신입 · 경력(2~4년) · 기타 필수 사항
  - 우대사항
    - 토목기사, 건축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우수, 문서작성 우수자, CAD / CAM 능숙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신입(수습기간-3개월)
  -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급여 : 당사 보수 규정에 의함
  - 복리후생 : 4대보험, 경조금, 명절비, 교육·사내동호회지원 등
  - 근무지역 : 전남 장성군 장성을 소재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01월 26일(수) 09시~ 채용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dawoeng@chol.net)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 문의 및 연락처
  - 061-395-2310 / 010-8687-3596
  - 전남 장성군 장성을 청운1길 15, 2층

\*유의사항\*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DNV (주)다우컨설턴트**  
DAWOO Consultants Co., Ltd.